

장애인의 음악교육활동에 관한 연구동향 - 2010~2019년 국내 등재(후보) 학술지를 중심으로 - Research Trends on Music Education Activities of Disabled People: Focusing on Academic Journals Registered in Korea (candidate) from 2010 to 2019

한 수 정*

Su Jeong Han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 대상 음악교육활동과 관련된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2010~2019년까지 장애인의 음악교육활동에 관해 연구한 총 722개의 국내 논문 중 총 163편을 추출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도,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 교육활동 영역에 따른 분석 등 5가지로 분류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음악교육활동 연구는 2019년에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별에서는 지적장애 유형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연구방법별에서는 양적연구가, 연구주제별에서는 기타 부분을 제외하고 사회적 요소가, 교육활동 영역별에서는 연주활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에 장애인의 음악교육 철학 페러다임에 관한 지속적인 학문적·실천적 연구가 요구된다.

주제어: 장애인, 음악교육, 음악활동, 학술지, 연구동향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Korean domestic research trends related to music education activities for the disabled. From 2010 to 2019, a total of 163 studies were selected as the subject of study from a total of 722 Korean domestic articles on music education activities of the disabled. The data were analyzed by categorizing them into five categories: year, research subject, research method, research topic, and educational activity a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research on music education activities was most actively conducted in 2019. As for the research subject, 'intellectual disability type' was the most frequent. Quantitative research by research method, social factor excluding other parts by research subject, and performance activity by educational activity area occupied the most. Therefore, continuous academic and practical research on the paradigm of the music education philosophy of the disabled is required.

Key words: disabled people, music education, music activities, academic journals, research trends

* Corresponding author, E-mail: aspray2000@hanmail.net.

Lecture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 Korea

I. 서론

음악은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도구로서 정신의 정화와 인격 도야를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 인간 사회를 결속하고 유지하게 하는 우리의 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Lee & Lee, 2010). 그리고 음악은 집단의 유대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개인에게는 적응성 있는 긴장 및 이완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Han & Han, 2013),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 교류를 강화하여 창조적인 에너지를 표출하게 하는 매개의 역할로 작용한다.

음악교육은 계획된 의도 아래 적절한 체험과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 개개인의 음악적 성장 및 인간적 성장을 도우며(Lee, 1991), 학령기의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비학령 시기 성인장애인의 생활과 삶 속에서 함께 향유할 수 있는 필수적인 학습으로서 심리적·정서적 측면의 완화와 정신적·신체적 건강기능의 향상을 돕는다. 그러나 음악교육은 소외되거나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있어 등한시되는 경향성이 없지 않다. 장애인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범람하는 지식 정보의 접근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 특히, 학령기 이후의 지속적인 교육은 중요하며, 학령기 동안 습득한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초지식, 사회적 기술을 유지하고 발달시키기 위해 성인기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Lee & Lim, 2019).

특수교육 음악과 교육과정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적합한 양질의 음악교육을 제공해 주는 기본적인 역할을 할 때 의미가 있다. 특수교육 음악과의 기본 교육과정은 장애학생에게 음악적인 즐거움을 주고 자연스럽게 개인의 전반적인 신체적·인지적 발달의 도모에 가치가 있으며, 다양한 감각 체계를 사용한 음악활동을 통해 장애학생의 지각 및 운동 능력을 길러주고 지속적인 감각 및 지각활동을 통해 사고력, 기억력, 주의집중력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2015 특수교육 음악과 기본 교육과정은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음악교과의 성격과 특성, 적용 대상, 학생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음악적 표현, 음악적 감수성, 음악적 소통 능력, 창의 융합 능력 등의 4가지 교과 역량 요소를 수용하였다. 그리고 특수교육 음악과 기본 교육과정의 문서는 성격, 목표, 내용 체계(표현, 감상, 생활화), 성취기준,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로 구성되었다(Min et al., 2020).

장애인의 문화예술 관련법은 크게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예술 교육진흥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장애인문화예술원의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지원사업 등을 들 수 있으며, 중앙 부처 주관 장애예술인 사업인 문화누리카드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혜택이 지원된다. 지원사업 운영의 예로, 2017년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시행되었으며, 문화재단 등을 통한 장애예술 지원사업은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진흥하고 있으나, 총괄 법령이나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Korea Disability Arts & Culture Center, 2018).

우리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를 위한 지원이나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인 근거로는 헌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¹⁾, 문화예술진흥법²⁾, 장애인복지법³⁾, 장애인차별금지법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실질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토대로 하여 관련 지원사업을 통해 음악, 미술,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등 6개 분야의 전문 문화예술교육 강사를 장애인 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 사업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함께누리 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의 지원 및 문화예술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공공성과 경쟁력을 증진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Korea Disability Arts & Culture Center, 2018), 2021년에는 장애 예술 공연장 조성 및 장애예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한 사업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지원사업과 장애인 예술가 및 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 사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사업은 궁극적으로 장애인 예술가 및 단체의 예술 창작 활성화와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하고 있다.⁵⁾ 최근 장애예술인 지원법을 통해서도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권리 보장,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삶

1) 문화예술진흥법 15조 2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 예술단체에 대한 경비 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3) 장애인복지법 제3조와 제8조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 등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으며,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 권리를 가지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6조 3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성별이나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5)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사업에서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성화, 문화예술 향수 지원, 동호회 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국제교류활동 등 총 10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사이트. 2020년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사업 설명회 자료.

<http://www.i-eum.or.kr>

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률에 근거한 대응 방안 수립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16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장애인들의 요구 수용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역별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보급해야 하는 의무를 내세우고 있으며, 2017년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을 발표하여 국가 차원 및 지역별 장애인의 요구를 고려한 시·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계획 수립과 운영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국립특수교육원(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2020)의 보고서에서는 2018년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를 통해 정규과정 이후 비학령기 장애 학습자의 지속적인 학습의 권리와 평생학습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장애인 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대상 기관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관 및 교육 관계자들의 미비한 전문성과 실습을 위한 교자재 및 장비 등 학습 환경의 부족함이 지적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인적·물적 자본의 지원 및 구축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한편, 2017년 특수교사 실태조사 보고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여가에 관한 조사의 분석결과, 주된 여가활동으로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내 선행연구에서 발달장애 자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Kim et al., 2016)에서는 여가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1차 산업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적인 여가프로그램의 활용이 여가 및 직업의 균형을 이루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유의함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김두영 외(Kim et al., 2013)는 학령기 교육과는 다른 학습자 중심의 안드라고지(Andragogy)를 근간으로 하는 평생교육을 설명하면서 성인기 장애인들이 학습자로서 스스로 배움의 과정에 참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자 관점에서의 연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현재 정부와 복지기관에서는 장애인들의 생활상 적응을 위해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학교 및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심리적·사회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많고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적 교육 요구와 학습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학령기의 음악학습 경험은 학업 이수 후 성인기의 교육 및 사회로의 적응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애인의 바람직한 성장과 성숙한 발전을 위한 음악교육의 개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장애인의 장애유형에 관한 다양성 및 심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를 반영한

음악교육활동의 다각적인 지지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장애인의 음악교육활동에 관한 연구의 동향 분석은 아직 미비한 연구 분야를 파악할 수 있고, 더욱 체계적인 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성공적이고 균형 있는 장애인 음악교육 연구활동의 전개를 위해 최신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국내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장애인 음악교육 및 음악치료활동과 관련된 연구에서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영·유아시기를 비롯하여 초·중·고등학교, 대학생, 성인, 노인, 대상 혼합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시기와 여러 시기의 중복을 포함하여 시도되고 있다. 국내에서 일반 학교 음악교육의 대안적 역할을 담당하는 장애학습자와 관련된 음악예술교육 기관의 사례로는 서울삼성학교, 한빛맹학교, 다다예술학교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몸짓과 소리, 기쁜 샘 플룻앙상블, 수원 에이블 아트의 헬로우 샘 오케스트라 등의 음악프로그램에 관한 활동들을 찾아볼 수 있다.

장애인의 음악교육활동과 관련된 연구의 동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음악활동 중심의 중재 연구(Liem et al., 2005)에서는 전국 단위의 학술지를 검토, 수집하여 연구대상 및 장애유형, 중재 환경, 상호작용 대상, 집단 구성, 중재 영역 등을 분석하였으며, 음악활동 중심 프로그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접근 방법과 음악적 구성 요소 등의 범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음악활동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중재 효과를 검증한 연구(Won & Ju, 2008)에서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및 학위논문을 선정하여 연구대상자의 수와 연령, 장애유형, 중재자, 중재 장소 및 집단, 방법, 목표 행동, 설계 관련 자료, 중재·유지·일반화 등을 바탕으로 하여 분석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음악 관련 연구동향을 다룬 연구(Kim & Kim, 2015)의 분석결과에서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구 중 2012년과 2013년에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많았다. 그리고 연구방법에서는 양적연구가 질적연구보다 많이 수행되었으며, 실험 연구대상은 지적장애인과 학령기 이전 유아대상 연구가, 사용된 방법은 가창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각장애학생의 음악교육 관련 연구 및 사회성과 관련된 연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을 제시하였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통합 음악교육에 관한 최근 국내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Seung, 2021)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연구주제와 관련된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학술논문에서는 초등교육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초등 일반·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음악교육연구」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의 게재 논문은 각각 3편이었다. 연구자의 전공은 대부분 음악교육 전공이었

으며, 연구주제 및 내용은 교수학습 지도와 교육적 접근 방안이 가장 많았고, 연구방법에서는 문헌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한편, 특수교육 음악치료 연구의 국내 동향을 분석한 연구(Park, 2012)에서는 2002~2011년까지의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 이상의 논문 총 74편을 토대로 연도,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변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연도별에서는 2006~2009년 사이에 증가세를 보이다 2010년부터 3~5편의 연구가 이루어진 추세였으며, 연구대상은 자폐성 장애가 22편, 정신지체가 15편, ADHD가 10편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연구방법은 양적연구, 문헌연구, 질적연구의 순위로 나타났으며, 연구변인에서는 행동과 관련된 논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음악교육 동향과 관련된 국외 연구(Loong, 2014)의 사례에서는 ADHD 학생을 위한 음악수업에 관해 미국에서 사용된 전략들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장애학생에 관해 이해의 시작단계에 있는 교육 및 음악교육 전공 대학생들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수준에서, 특히, 통합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 및 접근법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음악교육활동의 연구동향 고찰을 통한 논문들을 고려하였을 때, 선행 연구에서는 한정된 대상을 다루고 있거나 시기, 연구대상, 방법 및 주제 내용 등 유사한 분석의 틀을 사용하고 개별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의 특수교육적 특성에 따라 음악교육과 생활화, 그리고 평생교육에의 확장까지 음악프로그램의 활동에 관한 연구들은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어 다양한 장애인 교육대상별에 각기 적합한 연구에 관한 노력은 아직 부족함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실제적인 음악교육의 실천과 발전에 있어 학령기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비학령기, 비근로의 성인장애인까지 장애유형 및 관련된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와 최근의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실천적인 음악교육을 시행하여 국가적 차원의 음악문화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Han & Han, 2014), 장애인 음악교육 현장의 현실적 경향성 파악으로 도출된 결과를 통해 차후 연구에 관한 제언과 평생교육적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장애인 음악교육에 관한 의미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국내 연구동향 분석에 있어 영·유아시기부터 성인기, 노년기를 포함해 더욱 확장된 측면에서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론적 근거의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연구목적의 기준 분석 틀을 선정하였다.

그동안 장애인에게 음악활동을 활용한 국내의 선행연구로, 장애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음악활동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들(Liem et al., 2005; Won & Ju, 2008; Hong & Kim, 2012)이 수행되었으며,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교육의 효과성 및 실태, 선호도 등을 분석한 연구들(Nam et al., 2011; Park & Lee, 2013; Park & Kim, 2018),

국내 학술지 또는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음악교육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들(Kim & Kim, 2015; Seung, 2021)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특수학교 및 통합학급 교사, 장애전담 교사 관점에서의 연구들(Seung, 2012; Chang, 2012; Kim, 2017; Park, 2017)과 성인장애인의 음악 중심 여가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관한 여러 연구(Lee, 2011; Cho, 2016; Han, 2019)가 진행되어 장애인에 대한 음악교육활동을 탐색하고 학습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기존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장애인의 음악교육활동은 잠재된 창의력의 표현 및 신장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도출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시한 선행연구들은 게재된 연구물의 장애 영역이나 다양성, 연구대상 연령 등의 측면에서 다소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은 장애인의 정서 함양과 사회성 발달, 즐거움을 부여하는 음악의 생활화에 있어 의미가 있으며, 장애인의 음악교육 활동과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실제적인 학문과 실천적인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의 경향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통해 음악교육 활동의 질적 향상과 미래의 장애인 음악교육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음악교육활동에 관한 최근의 국내 연구들을 파악하여 새로운 변화와 시도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장애인의 음악교육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활동의 국내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음악활동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된 주제 연구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며, 향후 교육현장 및 관련 기관에서 유용한 음악학습 설계 및 프로그램 활용 가능성에 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의 연구동향 분석에 있어 활용한 자료들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등재(후보) 학술지 이상의 논문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음악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하여 최근 국내 연구 학술지의 연도별, 연구대상별, 연구방법별, 연구주제별, 교육활동 영역별에 근거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음악교육 연구과제 및 발전방안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바탕으로 하여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장애인의 음악교육활동 연구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장애인의 음악교육활동 국내 연구의 연도에 따른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장애인의 음악교육활동 국내 연구의 연구대상에 따른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장애인의 음악교육활동 국내 연구의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장애인의 음악교육활동 국내 연구의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5. 장애인의 음악교육활동 국내 연구의 교육활동 영역에 따른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장애인 음악교육활동의 연구동향 빈도 및 경향에 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의 주제를 선정하고 기존의 문헌연구와 연구 분석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의 음악교육활동 및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분류 기준을 선정하였으며, 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2. 분석대상

본 연구는 장애인에 관한 최근 10년 동안의 음악교육활동과 관련된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사이트에서 검색된 자료를 기초로 하였으며, 검색 키워드는 ‘음악’과 ‘장애’의 핵심어를 조합, 검색하였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등재 및 등재 후보 학술지를 검색한 결과, 총 722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그 중 중복되거나 파일이 만료된 논문, 학위 및 교육논문, 연구보고서, 학술대회 발표 및 포스터논문, 타 학문과의 융합 연구물 등 559편의 논문을 제외하고 연구에서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총 163편의 국내 논문을 선정하였다.

3. 분류 기준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2010~2019년까지의 장애인 관련 음악교육활동에 관한 국내 등재(후보) 학술지의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총 163편의 논문 내용을 기초로 연도별, 연구대상별(장애유형별, 연령대 구분 포함), 연구방법별, 연구주제별, 교육활동 영역

별로 분류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분류 기준의 선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연구대상에 따른 분석에서는 Brown(1969)이 제시한 연구대상이 표집된 기관 및 연구대상의 학력이나 직업, 문제증상 등의 특성을 참조하였으며, Munley(1974)의 연구대상 연령, 남녀 구분, 구성 비율, 표집 크기 등을 고려하여 분류의 기준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연구방법에 따른 분석에서는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하였다. 양적연구는 조사연구와 실험연구 및 관찰연구로 나눌 수 있으며(Seong, 1998), 질적연구는 비통계적인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양적연구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현상의 심층적 관찰, 현상학, 문화기술, 사례연구 등을 포함한다(Kang et al., 2004). 이를 토대로 Brown(1969)의 분류 기준을 참조하여 연구방법을 구분, 보완하였으며, 본 연구의 필요에 따라 세부 항목의 분류 기준을 선정하였다. 연구주제에 따른 분석에서는 박소연(Park, 2012)의 특수교육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의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보완, 구성하였으며, 교육활동 영역에 따른 분석에서는 주대창 외(Ju et al., 2018)의 음악활동별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연구에서의 구분을 토대로 하여 분류 기준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은 전 생애 장애인의 음악교육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종합적·객관적 결과의 도출을 위해 분류작업을 시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 및 특성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 분석의 틀을 선정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 작업의 진행은 먼저, 연구 논문을 숙독하며 필요한 주요 내용을 본 연구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분석 유목 및 관련된 사항들을 요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이후 음악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박사, 연구자와의 피드백 및 검토 사항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연구 논문에 대한 이차적인 작업을 실시하여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분석은 SPSS 23.0 program을 사용하여 연구동향에 대한 빈도분석을 시행하여 해당 변인에 따른 빈도의 수, 백분율을 산출하여 이를 제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국내의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10년 동안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하였으며,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한 대상인 국내 등재(후보) 학술지는 장애인 음악교육 및 치료에 대한 게재 학술지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학술지 목록은 음악교육연구, 예술교육연구, 음악교육공학, 한국음악치료학회지, 예술심리치료연구, 음악교수법연구, 국악교육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지적장애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자폐성장애연구, 발달장애연구, 시각장애연구,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재활복지, 특수교육연구,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특수교육학연구,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직업재활연구, 재활심리연구, 한국운동재활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교정복지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청소년학연구, 질적탐구, 융합정보논문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학술논문 자료분석의 틀은 연도에 따른 논문 수, 연구대상(장애유형별, 연령대 구분 포함), 연구방법, 연구주제, 교육활동 영역의 분류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이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1. 연도별 분석

본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 논문들은 2010~2019년까지로서 이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범주화하였으며, 국내 학술지를 대상으로 ‘음악’과 ‘장애’로 키워드를 조합, 검색한 결과, 722건의 논문 중 장애인 음악교육과 관련된 학술논문은 총 163편이었다. 연도에 따른 논문 수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결과 내용은 다음의 <Table 1>에 제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발표된 등재(후보) 학술논문은 2019년($N=27$, 16.6%)에 가장 활발히 수행되었으며, 그다음으로는 2012년과 2013년(각각 $N=22$, 13.5%)에 수행된 연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감소와 증가를 거듭하였으며, 2019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Number of papers by year

($N=163$)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Total	M
N	7	13	22	22	12	18	15	10	17	27	163	16.3
(%)	(4.3)	(8.0)	(13.5)	(13.5)	(7.4)	(11.0)	(9.2)	(6.1)	(10.4)	(16.6)		

2. 연구대상별 분석

본 연구에서 학술논문의 연구대상별 분석은 장애유형과 연령대 구분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다음의 <Table 2>에서는 연구대상에 따른 논문의 수에 대한 분석 전체의 결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에 관한 내용 중 장애유형의 분류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건강장애, 발달장애, ADHD, 기타 1(감각통합장애 등)로 분류하였고, 그 외에도 통합교육, 부모, 교사, 기타 2(인식 정도, 사람이 아닌 대상 등) 등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대상별에서의 분석결과, 지적장애($N=37$, 22.7%), 기타 2(인식 정도 및 사람이 아닌 대상 등, $N=25$, 15.3%), 시각장애($N=23$, 14.1%), 교사($N=16$, 9.8%), 자폐성장애 및 발달장애(각각 $N=14$, 8.6%), 통합교육($N=10$, 6.1%), 청각장애($N=9$, 5.5%), ADHD 및 부모(각각 $N=4$, 2.5%), 의사소통장애($N=2$, 1.2%) 및 기타 1(감각통합장애 등, $N=2$, 1.2%)의 순위로 나타났다.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건강장애는 각각 $N=1$, .6%의 동일한 비율로 나타나 가장 낮은 순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Number of papers by research subject

($N=163$)

Research subject	Number of papers	Percentage(%)
Visual impairment	23	14.1
Hearing impairment	9	5.5
Intellectual disability	37	22.7
Physical disability	1	.6
Emotional behavior disorder	1	.6
Autistic disorder	14	8.6
Communication disorder	2	1.2
Health disability	1	.6
Developmental disability	14	8.6
ADHD	4	2.5
Others 1 (sensory integration disorder, etc.)	2	1.2
Integrated education	10	6.1
Parents	4	2.5
Teacher	16	9.8
Others 2 (awareness level, non-human subjects, etc.)	25	15.3
Total	163	100.0

한편, 다음의 <Table 3>에서는 학술논문의 연구대상에서 장애유형별 분류가 가능한 108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적장애($N=37$, 34.3%), 시각장애($N=23$, 21.3%)의 유형 순위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자폐성장애 및 발달장애유형이 각각 $N=14$, 13.0%로서 동일한 순위 비율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각장애($N=9$, 8.3%), ADHD($N=4$, 3.7%), 의사소통장애($N=2$, 1.9%) 및 기타(감각통합장애 등, $N=2$, 1.9%) 유형의 순위였으며,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건강장애유형은 각각 $N=1$, .9%로 나타나 동일한 비율로서 가장 낮은 순위로 확인되었다.

<Table 3> Number of papers by disability type

(N=108)

Disability type	Number of papers	Percentage(%)
Visual impairment	23	21.3
Hearing impairment	9	8.3
Intellectual disability	37	34.3
Physical disability	1	.9
Emotional behavior disorder	1	.9
Autistic disorder	14	13.0
Communication disorder	2	1.9
Health disability	1	.9
Developmental disability	14	13.0
ADHD	4	3.7
Others 1(sensory integration disorder, etc.)	2	1.9
Total	108	100.0

다음의 <Table 4>에서는 학술논문의 연구대상에서 연령대 구분에 따라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성인, 대상 혼합, 기타(대상 구분 없음 등)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는 유용한 음악활동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의 측면을 고려한 분석으로서 공교육 기관의 현장과 학교 이외 관련 기관의 구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의 결과, 초·중·고등학생($N=44$, 27.0%)과 대상 혼합($N=44$, 27.0%)이 동일한 비율로서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영·유아($N=43$, 26.4%), 성인($N=24$, 14.7%), 기타(대상 구분 없음 등, $N=8$, 4.9%)의 순위 비율로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

<Table 4> Number of papers by age range

(N=163)

Range of age		Number of papers		Percentage(%)	
Infants and toddlers			43		26.4
Primary · middle · high school	Primary school students	30	44	18.4	27.0
	Middle school students	11		6.7	
	High school students	3		1.8	
Adults			24		14.7
Blended			44		27.0
Others(no classification)			8		4.9
Total		163		100.0	

3. 연구방법별 분석

본 연구에서의 연구방법 분석은 크게 네 가지로 범주화하여 양적연구, 질적연구, 양적·질적 병행연구, 문헌연구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양적연구는 실험연구와 기술연구로서, 실험연구에는 단일 및 집단연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술연구로는 사례 및 비교연구, 조사 및 평가연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문헌연구는 음악교육 및 치료에 대한 현황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연구동향 분석, 교수학습 설계, 음악프로그램 개발 등의 내용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총 163편의 논문에 적용된 연구방법에 따른 분석의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연구방법은 양적연구로서 84편이 수행되었으나 양적·질적연구를 병행한 연구는 세 편에 그쳤다. 구체적인 분석결과와 내용은 다음의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분석의 결과, 양적연구(N=84, 51.5%), 문헌연구(N=47, 28.8%), 질적연구(N=29, 17.8%), 양적·질적 병행연구(N=3, 1.8%)의 순위 비율로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

연구방법과 관련된 학술논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방법 중 먼저, 양적연구의 단일 및 집단연구 등 실험연구와 관련된 논문으로 모방 및 반영 기법을 적용한 즉흥연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자폐아동의 상동행동에 대한 영향 연구(Lee & Kang, 2011)와 국악중심 음악치료가 시각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Nam et al., 2011)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사례연구로는 지적장애인 상동행동 및 상호작용에 관한 음악치료의 연구(Choe & Nam, 2013)가 진행되었다. 비교연구로는 정서 유도 음악에 관한 시각장애인 및 정안인의 음악적 정서 반응 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분석한 연구(Park & Chong, 2015)가 다루어졌다. 또한, 조사연구로는 특수학교의 음악교사 전문성 인식 및 직무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Kim, 2017), 서

울시 초등학교의 통합교육 실태와 특수·통합학급 교사들의 의견에 관한 통합학급 음악교육을 중심으로 한 연구(Seung, 2012) 등이 이루어졌다.

한편, 문헌연구로는 특수학교의 음악교과서 국악 제재 곡과 학습내용의 분석에 대한 연구(Park, 2012)와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을 위한 음악교과교육에 있어 학문적인 기초에 관해 다룬 연구(Seung, 2010) 등이 진행된 바 있다.

질적연구로는 시각장애 학생의 피아노 교수경험에 관한 비시각장애 교사의 자문화 기술지 연구(Park, 2017)와 통합 어린이집 발달지체유아의 장애전담교사 관점에서 바라본 음악활동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Chang, 2012)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자폐스펙트럼장애아동의 치료과정 중에 이루어진 음악치료사와의 관계 형성에 대한 경험의 합의적 질적연구(Ryu & So, 2018)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양적·질적연구방법을 병행한 연구로는 오르프 술베르크를 적용한 음악교육활동이 자폐성 장애학생의 과제수행 및 주의집중 행동에 나타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Park & Kim, 2010)와 그룹음악치료를 활용한 여가활동이 후기성인장애인의 우울감소 및 사회적 지지에 관한 영향력 연구(Lee, 2011) 등이 수행되었으나(Min et al., 2020) 아직 연구방법을 혼합하여 병행한 연구는 한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5> Number of papers by research method

(N=163)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Mixed research method	Review of literature	Total
Number of papers	84	29	3	47	163
(%)	(51.5)	(17.8)	(1.8)	(28.8)	(100.0)

4. 연구주제별 분석

연구주제에 따른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주제의 내용은 인지적·언어적·행동적·사회적·정서적·신체적 요소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외에도 기타 1(음악경험, 이론지식, 인식정도 등), 기타 2(연구물, 내용분석 등), 기타 3(개발, 지도안, 수업 모형 등), 기타 4(요소의 혼합) 등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주제에 따른 논문 수와 주된 요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분석에서 기타 영역의 주제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연구주제별 분석에서의 순위를 제시하면 다음의 내용과 같다. 분석의 결과, 사회적 요소(N=15, 9.2%), 정서적 요소(N=11, 6.7%), 언어적 요소(N=9, 5.5%), 신체적 요소(N=7, 4.3%), 행동적 요소(N=5, 3.1%), 인지적 요소(N=4, 2.5%)의 순위 비율로 나타났다.

연구주제의 주된 요소에 관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인지적 요소에는 집중력, 인지발달, 집행기능 등을, 언어적 요소에는 언어발달, 자기표현력, 어휘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행동적 요소에는 주의집중행동, 참여행동, 의사표현행동 등을, 사회적 요소에는 사회적 상호작용기능, 협응력, 의사소통발달, 대인관계 등을, 정서적 요소에는 공감능력, 음악정서, 자아존중감 등을, 신체적 요소에는 운동발달, 건강체력 등을, 기타 1(음악경험, 이론지식, 인식정도 등)은 음악적 능력, 음악치료활동, 음악수업인식, 부모인식, 교사인식 등을, 기타 2(연구물, 내용분석 등)는 음악 연구동향 분석, 음악 수업연구 분석 등을, 기타 3(개발, 지도안, 수업 모형 등)은 수업모형개발, 음악교육프로그램 개발, 음악학습 설계, 평가도구 검증 등을, 기타 4(요소의 혼합)는 언어문제해결력, 문제행동, 사회정서발달, 사회적 지지 등의 주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주제에 따른 관련 학술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요소와 관련된 논문으로는 방과 후 음악활동이 지적장애아동의 사회적인 상호작용 향상에 나타내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Hong & Kim, 2012)와 사회성 촉진의 음악활동이 통합어린이집 발달장애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Jang, 2011) 등이 이루어졌다.

정서적 요소에서는 정서 유도 음악에 관한 시각장애인과 정안인의 음악 정서적 반응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연구(Park, 2015)가 다루어졌으며, 건청학생과 청각장애학생의 정서지능 및 음악정서지각의 관계에 관한 연구(Lee & Choi, 2012) 등이 수행되었다.

언어적 요소에서는 통합보육기관 발달지체유아의 노래활동이 언어적 발달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Jang, 2012)와 청각장애를 가진 아동의 음악활동이 어휘력 향상과 관련된 사례연구(Park et al., 2013) 등이 진행되었다.

신체적 요소에서는 음악줄넘기 운동이 청각장애 청소년의 건강과 관련해 체력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Son et al., 2012), 그리고 음악활동이 어린이집의 통합된 발달지체유아의 운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Jang, 2013) 논문 등이 다루어졌다.

행동적 요소에서는 악기를 활용한 음악활동이 중도 및 중복장애를 가진 아동의 자기표현과 수업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Yang et al., 2015)가 수행되었으며, ADHD 성향을 가진 유아를 위한 음악적 치료가 행동에 나타내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Shin & Lee, 2011) 등도 진행되었다.

인지적 요소에서는 자기생성 배경음악(SG-BGM)을 적용한 지적장애학생의 과제집중력과 과제수행능력의 향상에 관한 연구(Kang & Kang, 2015) 등이 집필되었음(Min et al., 2020)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6> Number of papers by research topic

(N=163)

Subject	Main factor	Number of papers	Percentage (%)
Cognitive factor	Concentration, cognitive development, executive function	4	2.5
Linguistic factor	Language development, self-expression, vocabulary, communication skills	9	5.5
Behavioral factor	Attention-focused behavior, participatory behavior, intention-expressing behavior	5	3.1
Social factor	Social interaction function, coordination ability, communication developmen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15	9.2
Emotional factor	Empathy ability, musical emotion, self-esteem	11	6.7
Physical factor	Exercise development, healthy physical strength	7	4.3
Others 1 (music experience, theoretical knowledge, recognition level, etc.)	Musical ability, music therapy activity, music class recognition, parental recognition, teacher recognition	54	33.1
Others 2 (research, content analysis, etc.)	Music research trend analysis, music class research analysis	28	17.2
Others 3 (development, guidance, class model, etc.)	Class model development, music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music learning design, evaluation tool verification	14	8.6
Others 4 (mix of factor)	Language problem solving ability, problem behavior, social emotion development, social support	16	9.8
Total	-	163	100.0

5. 교육활동 영역별 분석

교육활동의 영역에 따른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논문 중 교육활동 영역이 중복된 논문, 개발이나 실태, 평가 및 문헌 관련 논문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교육활동 영역에 따른 논문 수와 주된 요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음악활동(가창, 연주, 창작, 감상), 이해, 생활화 등으로 분류가 가능한 37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활동 영역에서 연주(N=13, 35.1%) 영역이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는 생활화(음악줄넘기, 리듬자료 및 신체표현 등) 영역으로서 N=11, 29.7%의 비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다음으로는 가창($N=7$, 18.9%), 감상($N=4$, 10.8%) 영역의 순위였으며, 창작 및 이해(리듬, 가락, 화성 등) 영역은 각각 $N=1$, 2.7%의 비율로서, 관련된 논문은 각각 단 한 편으로 나타나 가장 낮은 순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활동 영역에서 각 영역의 주된 요소에 관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창 영역은 어휘력, 가창능력 등을, 연주 영역은 사회적 기술, 교우관계, 정서적응, 자기효능감, 운동발달 등을, 창작 영역은 의사소통, 운동성, 사회성 등을, 감상 영역은 집중력, 주의력, 정서능력 등을, 이해(리듬, 가락, 화성 등) 영역은 언어발달, 음악발달 등을, 생활화(음악줄넘기, 리듬자료 및 신체표현 등) 영역은 협응력, 언어표현, 의사표현 등의 주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활동 영역에 따른 관련 학술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주활동 영역의 논문으로는 난타 악기활동을 적용한 음악치료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에 나타내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Park & Kim, 2018)가 수행되었으며, 즉흥연주기법을 중심으로 하는 음악치료활동이 지적장애근로자의 자기효능감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Hong, 2014), 상호적 악기 연주활동 프로그램이 자폐범주성장애 성인의 사회적 상호작용 기능 향상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Cho, 2016) 등이 진행되었다.

생활화(음악줄넘기, 리듬자료 및 신체표현 등)의 영역에서는 음악줄넘기 프로그램이 비만 지적장애 학생의 신체조성과 협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Jo et al., 2015)가 다루어져 정신지체 비만학생에게 12주간의 음악줄넘기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장애학생의 신체구성 향상과 신체조율 및 균형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가창활동의 영역에서는 노래활동 및 언어발달에 관한 효과성 연구를 비롯하여 국내의 지적장애인 합창단의 역사에 대한 연구(Park, 2010), 그리고 전래동요를 활용한 교육 방안이 지적장애유아의 음악교육에 주는 의미에 관한 연구(Jung & Kim, 2010) 등이 다루어졌다.

감상활동의 영역에서는 시각장애학교의 중등학생이 참여한 음악감상교육의 현황 실태 및 선호도와 관련된 연구(Park & Lee, 2013) 논문이 수행되어 음악감상교육에 관한 활성화와 효율화를 위한 정보 및 기초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창작활동의 영역에서는 카이즈 발달척도에 따른 창작곡이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의 음악치료에 적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Park & Choi, 2010)가 진행되었다.

이해(리듬, 가락, 화성 등) 영역에서는 청각장애를 가진 초등학교를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Lee et al., 2016)에서 초등학교의 음악교과서에서 나오는

학년별 노래의 음역, 조성, 리듬, 형식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음악 및 언어적 발달에 있어 나타나는 긍정적인 영향력에 관해 논하였다.

<Table 7> Number of papers by educational activity area

(N=37)

Educational activity area		Main factor	Number of papers	Percentage (%)
Music activity	Song	Vocabulary, singing ability	7	18.9
	Performance	Social skills, Friend relationship, emotional adaptation, self-efficacy, exercise development	13	35.1
	Creation	Communication, mobility, sociality	1	2.7
	Listening	Concentration, attention, emotional ability	4	10.8
Understanding (rhythm, melody, harmony, etc.)		Language development, music development	1	2.7
Music in daily life (music rope skipping, rhythm data and body expression, etc.)		Coordination ability, language expression, intention expression	11	29.7
Total		-	37	100.0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국내의 음악교육활동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0~2019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분석하였다. 검색 키워드는 ‘음악’과 ‘장애’이며, 이를 조합, 검색하여 활용하였다. 논문의 분석에 있어 국내 등재(후보) 학술지 이상에 해당하는 논문으로 대상을 한정하였으며, 학위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학술대회 발표물, 여러 학문의 교과 영역을 융합한 실행연구 등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음악교육활동과 관련된 최근 학술논문 내용의 분석을 통해 국내 연구의 흐름을 탐색하였으며, 특수음악교육 및 음악치료에 관련된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 총163편을 연도별, 연구대상별, 연구방법별, 연구주제별, 교육활동 영역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음악교육 연구에 관한 과제와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논문의 수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분석한 결과, 발표된 학술논문은 2019년에 가장 활발히 수행되었으며, 그다음으로는 2012년과 2013년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0~2012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4~2018년까지는 감소와 증가를 거듭하였으며, 2019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 분석의 결과에서 2014~2018년도에 수행된 연구가 다른 해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시기에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음악과 교육과정 및 관련법의 개정, 성인장애인의 음악교육활동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평생교육법 등에 관한 제·개정 및 요청, 문화예술의 확대 방향 및 세부 사업별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교육 실천 현장에서는 실제적인 음악교육활동 수행에 있어 요구되는 물적 환경이나 인적자원의 기반 마련이 미비하여 교육활동에 관한 연구 수행에 여러 제한과 어려움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법적인 차원에서 교강사 및 음악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이전에 장애학습자 및 수요자 중심의 물적·인적자원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함이 강조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음악교육 참여율 및 만족감, 음악교육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장애인의 교육은 학령기의 교육제도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차원에서도 법적 근거와 정책적 체제를 갖추어 가고 있으므로 장애인의 음악교육 현장의 요구에 본격적으로 대응하여 더욱 심도 있고 체계적인 양질의 음악교육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에 따른 분석의 결과에서는 지적장애, 기타 2(인식 정도, 사람이 아닌 대상), 시각장애, 교사, 자폐성장애 및 발달장애, 통합교육, 청각장애, ADHD 및 부모, 의사소통장애 및 기타 1(감각통합장애 등)의 순위로 나타났으며,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건강장애는 동일한 비율로서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연구대상 논문 중 장애유형별로 분류가 가능한 학술논문 108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적장애유형이 가장 높은 순위이었고, 그다음으로는 시각장애, 자폐성장애 및 발달장애, 청각장애, ADHD 유형 순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사소통장애 및 기타 (감각통합장애 등) 유형은 동일한 순위로 그 뒤를 이었으며,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건강장애 등의 유형은 동일한 순위 비율로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대 구분에 따른 분석의 결과에서는 초·중·고등학생 및 대상 혼합이 동일한 비율로서 가장 높은 순위이었으며, 그다음으로는 영·유아, 성인, 기타(대상 구분 없음 등) 등의 순위 비율로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교육 학교 현장의 정규과정에서 장애학생의 특수음악교육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환적 성인기의 장애인 음악교육 연계를 위한 실질적 연구의 수행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장애의 유형과 연관된 음악교수방법 및 치료기법, 정신 및 질병 문제를 비롯한 정서적·심리적·행동적 측면 등 여러 요소에 관한 연구의 수행과 음악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협업 및 적극적인 교육의 개입으로 가정 및

학교, 사회적 관계망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음악프로그램의 개발과 음악교수학습모형의 구축이 요구된다. 한편, 연구의 결과에서 연구대상별 분석에서는 지적 장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장애유형이었으나 기타 연구대상의 유형에서 인식 정도나 사람이 아닌 대상에 관한 연구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일선의 특수음악교사와 평생교육 현장의 음악교육 관계자는 장애유형 및 대상 특성에 적합한 차별성 있는 교육의 실천적 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더욱 세분화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방법에 따른 분석의 결과에서는 양적연구, 문헌연구, 질적연구, 양적·질적 병행연구의 순위 비율로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 연구방법 중 양적연구가 84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적·질적 병행연구는 세 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다양한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이를 적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된다. 이와 관련해 양적·질적연구 병행이 필요한 이유로 먼저, 질적 연구는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연구 참여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므로 이러한 강점을 활용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점(Kim, 2014)을 들 수 있으며, 양적연구는 다수의 인식과 태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현황 파악에 있어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질적연구를 포함한 혼합연구 등 다각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연구가 함께 수행되어야 함이 요구된다. 장애인의 개별적인 요구는 각기 다르고 그에 관한 다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했을 때 양적연구와 더불어 다양한 장애인의 음악학습에 관한 개별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질적 연구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음악교육의 효과성 및 의미를 더욱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석방법의 확장 및 적용의 시행을 위해 다양한 접근 방법의 연구가 게재되어야 하겠다. 예컨대, 지자체 단위의 장애인 음악예술 단체 및 기관들의 다양한 음악예술 사업에 관한 통합 및 조정을 위해서는 기관의 방문 조사 및 심층면접 등 동시적·혼합적인 연구의 수행으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음악교육의 운영 요구 및 현황을 파악하여 새롭게 도출된 현상과 의미의 양상을 발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장애인 음악교육 활동의 양적·질적 성장과 장애인에게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음악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해서는 현행 장애인의 음악교육에 관한 실제적인 파악이 중요하며, 현 체제의 교육 문제에 관한 탐색은 향후 장애인 음악교육의 발전 방안 및 방향성을 면밀히 제시할 수 있으므로 실태 파악 및 분석에 대한 혼합적 연구의 시도가 필요하다. 이처럼 장애인을 위한 음악교육의 혼합연구 설계 적용을 위해서는 양적·질적 자료의 혼합연구 원리와 설계 전략, 연구의 혼합방식 및 실제에 관한 탐색을 도모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적인 학습자로서 자신의 요구에 관해 최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섬세한 배려와 지지가 필요하며, 음악교육 분야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

의 접근 및 연구방법의 병행을 통해 교육적 현상을 더욱 타당하고 효과적으로 인식하여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주제에 따른 결과에서는 사회적 요소, 정서적 요소, 언어적 요소, 신체적 요소, 행동적 요소, 인지적 요소의 순위 비율로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 연구주제별 분석의 결과, 다양한 요소별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연구의 결과에서 사회적 요소의 연구 비중이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들의 원만한 대인관계 및 사회적 상호작용기능의 촉진, 협응 능력 및 의사소통의 발달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음악교육은 실천 지향적 교육의 영역으로 학습의 실천 현장을 의미 있고 건강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음악 학문 영역으로 깊이 있게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음악교육활동을 통한 사회적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교육 기관에서의 교육적 노력뿐만 아니라 학교 이외 유관 단체들의 관심과 협업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정규과정의 장애인 음악교육 이수 후 성인장애인 시기에는 타자가 조성한 음악예술의 향유나 이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으로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가 음악예술을 직접 창작하고 조직을 구성하여 경영하는 등 활동적·주체적인 장애인예술인으로까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장애인의 음악교육활동에 대해 비장애인의 긍정적인 인식의 개선과 확산으로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삶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음악교육의 통합적 생태계 조성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활동의 영역별 분석에서 음악활동(가창, 연주, 창작, 감상), 이해, 생활화 영역 등으로 분류가 가능한 논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연주 영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생활화(음악즐넘기, 리듬자료 및 신체표현 등), 가창, 감상, 창작 및 이해(리듬, 가락, 화성 등) 영역의 순위 비율로 나타났으며, 창작 및 이해 영역과 관련된 논문은 각각 단 한 편으로 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음악활동 효과성에 있어 사회적 기술이나 교우관계, 정서적 적응 및 자기효능감, 운동발달 등의 주된 연주활동 요소를 활용한 연구에 비해 장애인의 특성상 직접적인 표현의 창출이 요구되고 음악 체험의 증대가 강조되는 창작 관련 음악활동이나 리듬, 가락, 화성 등 이해 영역에 관한 음악학습 능력 및 학문적 소양 함양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수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교사의 관심과 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성과 관련된 음악교육 연구의 수행에서 여러 시행착오와 난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교육부나 지역 교육청에서는 장애인의 음악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프로그램 및 재교육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더욱 세밀한 교육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시사점으로, 장애인의 음악교육 지도에 있어 정규과정 장애 학생의 특수음악교육과 함께 학령기 이후 성인장애인들의 음악프로그램 활동에 관한 학습자의 요구 및 수요를 반영하여 이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음악교육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며, 장애학습자의 생애주기 구분에 따른 차별화된 음악교육을 시도하여 교육 현장 및 삶의 생활 속에서 장애인들의 실제적 변화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음악 지식과 실습 능력의 원활한 학습 전달이 강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의 과제와 발전 방안의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첫째, 학령기 정규교육과정에 있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음악 중재 활용 연구들의 객관적 분석을 위한 측정 지표 개발이 필요하며, 다양한 요인과 중재방법별에 적절한 음악교수법이 개발되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학령기 성인 및 고령장애인의 음악교육에서는 그들의 특수성 및 차별성을 고려하여 생활상의 연령에 적합한 맞춤형 음악프로그램의 운영과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진행된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므로 기간의 설정이나 분석 논문 기준을 변경하여 음악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중재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대의 세계화 흐름 속에 국외의 장애인 음악교육활동에 관한 전체적인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연구의 시도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장애인의 생애별 연령대를 고려하여 생애주기의 시기별 특성에 따른 음악교육의 효과성 및 학습성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학생의 음악활동 및 학업 이수 후 진로 탐색이나 전환적 시기로의 연계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안 등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재활이나 직업과 관련된 교사 및 특수교사, 음악전문가, 평생교육사의 협력적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비근로 상황의 성인장애인 자립 및 생활을 위해 음악교육활동은 학령기에서만 아니라 비학령기의 성인기와도 원만히 연계되어 원만한 사회로의 적응을 도와야 하며,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음악활동의 교육적 개입 및 중재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평생학습으로의 지속적 배움과 일상생활에 있어 건강하고 균형 있는 삶의 영위를 위해서도 국가 정책 차원에서의 지원 대책 수립으로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관련 기관 및 교육관계자들의 원활한 협업과 연계적 교육의 운영, 그리고 장애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공동 네트워크망 구축 및 운영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넷째, 장애인들의 학습 목표달성과 음악교육 참여에 있어 수요자 중심의 요구 분석 및 반영은 매우 중요하다. 학령기 교과과정 상의 음악교육뿐만 아니라 전환적 성인시

기의 연계 교육에서 자립을 위한 생활 적응 능력 향상 등 이를 목적으로 하는 다채로운 연구가 확장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는 현시대의 요구와 더불어 흐름의 필요에 따라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음악교육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음악교육의 가치와 의미가 더욱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학습자 당사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고려한 음악교육과정의 재조정이 필요하며, 장애유형별 학습기회 제공 및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음악교육 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정규과정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학령기 이후 성인장애인의 일상과 직업의 연계, 사회로의 적응을 위한 원활한 음악교육과 함께 인생 시기별에 적합한 음악교육의 환경 조성 구축이 강구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학술논문 이외에도 장애인의 음악교육과 타 교과 학문의 영역을 병행, 융합한 프로그램 연구와 지도안 및 모형 개발 등에 관한 연구물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에 장기적인 학습의 관점에서 특수음악교육과 음악치료 전문가의 내용 지식, 다양한 교과 학문 간 영역의 융합교육 연구가 원활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음악을 비롯한 문화예술 영역 분야 간의 융합, 또는 다양한 사례를 적용한 공학 계열에서의 음악활동, 새로운 음악교수학습방법의 창의적 활용 등 장애인의 음악학습에 있어 효율적인 연구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시사점을 토대로 하여 추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음악활동의 중재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음악활동을 중심으로 현시대의 패러다임에 부합한 음악 연계 융합교육을 지향함으로써 다양한 음악활동의 중재 및 역할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음악 관련 매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근거하여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일지라도 주체적인 학습자로서 자신의 음악학습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 연구자는 그들의 의견에 대한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방법론적 연구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외 장애인 및 국가 간 장애인의 음악교육에 관한 비교연구 등 연구동향에 있어 연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게재된 국내 등재(후보) 학술지의 연구동향을 분석함에 있어 빈도분석을 중심으로 시행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음악교육활동을 통한 중재 전략 및 절차, 방법 등 장애인의 음악교육활동을 적용한 학습성과 및 효과성에 관해 다양한 연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

- Brown, F. G. (1969). Seven years of the journal: A review.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8, 263-272.
- Chang, H. S. (2012). Qualitative study on music activities in inclusive day-care centers on the basis of perceptions from teachers who teach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16(4), 1-24.
- Cho, S. J. (2016). The effects of interactive instrument playing program on social interaction of adul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13(1), 89-110.
- Choe, J. H., & Nam, S. I. (2013). An effect of music therapy on stereotyped behaviors and interactions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Single case study-. *The Korean Journal of arts Therapy*, 13(2), 153-175.
- Han, S. J. (2019). Analysis on participation status and needs of adults with disabilities in music activities at night school for the disabled.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4), 253-284.
- Han, S. J., & Han, K. H.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music subject as a liberal arts class and academic adjustment, social adjustment, emotional adjustment of freshme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2(4), 291-324.
- _____ (2014). The influence of music and cultural activity, relationship with friends and teachers and sense of self-efficiency on juvenile students' interest and achievement in music course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3(4), 211-237.
- Hong, E. S., & Kim, U. J. (2012). The effects of the after-school music activities on the social interactions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14(4), 1-25.
- Hong, J. W. (2014). A study on music-improvisation therapy conducted to improve intellectually disabled workers.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10(1), 123-148.
- Jang, H. W. (2011). The influence of music activities to facilitate social skills of infants with developmental delay in the inclusion settings.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13(4), 223-249.
- _____ (2012). Effects of songs activities to facilitate language development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in the inclusion setting.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2(3), 185-206.

- _____ (2013). Effects of music activities on motor development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in the inclusion setting.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0(2), 287-308.
- Jo, A. R., Kim, K. C., & Hyun, K. S. (2015). The effects of music rope-skipping program on the body composition and physical coordination of obese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59, 711-719.
- Ju, D. C., Kwon, S. M., Kim, G. S., Kim, M. S., Kim, S. M., Kim, S. Y., Kim, Y. M., Kim, Y. H., Kim, J. H., Min, K. H., Park, Y. J., Park, E. S., Park, J. C., Park, J. H., Bae, S. Y., Yang, J. M., Ryu, E. S., Yoon, M. J., Yoon, J. Y., Lee, K. W., Rhee, E., Rim, M. K., Lim, E. J., Jang, G. J., Cho, D. H., Cho, S. G., Choi, E. A., Choi, J. H., Hyun, K. S., & Hong, I. H. (2018). *Research trends in music education*. Seoul: Hakjisa.
- Jung, E. K., & Kim, S. A. (2010). The significance of the education program using korean children songs for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 Through analyzing prior studies. *The Journal of Korean Music Education Research*, 4(2), 229-252.
- Kang, E. J., & Kang, E. C. (2015). Improvement of task concentration and task performance capability using SG-BGM.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1(3), 603-630.
- Kang, Y. G., Park, S. B., & Jung, Y. S. (2004).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elfare*. Seoul: Hakhyunsa.
- Kim, D. Y., Kim, H. Y., & Yoon, J. H. (2016). An analysis of the motivation and satisfaction with participation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cognized by their parent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1(1), 129-151.
- Kim, D. Y., & Park, W. H. (2013). Lifelong education program open orientation degree analysis in Korean night schoo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4(4), 1-25.
- Kim, K. H., & Kim, E. H. (2015). A review of research on music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published in -domestic journal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31(3), 21-50.
- Kim, Y. H., Kim, J. H., Kwon, S. J., Lee, J. O., Kim, D. R., & Park, J. M. (2017).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expertise and job satisfaction of music teachers of special school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6(2),

147-168.

- Kim, Y. S. (2014). Trend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on lifelong education(2000-2013).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0(3), 135-166.
- Korea Disability Arts & Culture Center. (2018). *Basic research o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for the disabled*. Seoul: Korea Disability Arts & Culture Center.
- Lee, D., & Choi, S. K. (20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musical affect perception of normal hearing students and hearing impaired student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6(4), 195-218.
- Lee, D., Nam, S. W., & Jeong, M. R. (2016). Develop a music education program for hearing impaired elementary student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0(4), 21-39.
- Lee, E. H., & Kang, K. S. (2011).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based on an improvisation program using imitation and reflection techniques on the stereotyped behavior of autistic children. *The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15(3), 47-68.
- Lee, H. S. (1991). *Modern approach to music education*. Seoul: Sekwangmusic.
- Lee, H. Y., & Lim, K. W. (2019). Research trends on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special needs in Korea: 1998 to 2018.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5(3), 1-28.
- Lee, K. H. (2011). The effect of the group music therapy for leisure activities on the quality of life(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of disabled elderly persons.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13(1), 85-103.
- Lee, K. H., & Lee, H. G. (2010).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music class in the secondary school for the visually impaired.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6(1), 39-56.
- Liem, Y. O., Cho, K. S., & Kwak, S. C. (2005).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intervention programs using music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Korea.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14(3), 197-227.
- Loong, C. Y. (2014). Music education trends: Music lesson strategy for ADHD student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3(4), 269-276.
- Min, K. H., Kim, H. G., Cho, D. H., Han, S. J., Lim, Y. S., Park, H. S., Choi, G. Y., Han, S. Y., Lee, M. S., Cho, S. H., & Lee, J. S. (2020). *Theory and practice of music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Seoul: Hakjisa.
- Munley, P. H. (1974). A content analysis of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 305-310.

- Nam, I. S., Cheong, K. J., & Choi, A. N. (2011). The effects of a music therapy using principally Korean traditional music on visually-impaired students' ego-resilience.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9(4), 53-74.
-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2020). *2020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Seoul: National Lifelong Education Center for the Disabled.
- Park, A. R., & Kim, J. H. (2010). The effects of the music education program of Orff Schulwerk on the task behaviors and attention behaviors of students with autism.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26(4), 232-253.
- Park, B. K. (2017). Auto-ethnography of the non-handicapped teacher's piano teaching experience from a student with visual impairment. *Research in Music Pedagogy*, 18(2), 51-82.
- Park, C. H., Lee, M. S., & Park, H. (2013). A case study of vocabulary abilities improvement of hearing impaired children in musical activities. *The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17(4), 1-15.
- Park, H. N., & Lee, H. G. (2013). A study of the music appreciation education and preference of music appreciation for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the schools for the visual impairments.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29(4), 1-25.
- Park, H. Y., & Chong, H. J. (2015). A difference in the emotional response to music between adults with and without visual impairments.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31(3), 1-17.
- Park, J. E. (2010). History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choir in Korea.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12(3), 39-61.
- Park, J. E., & Park, W. H. (2012). An analysis on the contents and pieces of Korean music in music textbooks for disabled students in special education schools. *The Journal of Korean Music Education Research*, 6(2), 41-74.
- Park, K. H., & Choi, A. N. (2010). The effect of individualized creative music based on KISE development scale upon music therapy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6(3), 105-129.
- Park, S. Y. (2012). The trends of music therapy research in special education: Using journals in Korea from 2002 to 2011.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19(1), 97-117.
- Park, Y. H., & Kim, J. S. (2018). The effects of nanta music therapy program on social skills of adolesc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3), 249-267.

- Ryu, Y. J., & So, H. J. (2018).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on the music therapists' experiences of therapeutic relationships with children on the autism spectrum disorder. *Journal of Qualitative Inquiry*, 4(4), 137-165.
- Seong, T. J. (1998). *Introduction to educational research*. Seoul: Hakjisa.
- Seung, Y. H. (2010). A study of the academic basis for inclusive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8, 1-29.
- _____ (2012). A survey of the current status of inclusive education and special/general education teacher opinions in Seoul: Basic research for inclusive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0(3), 57-82.
- _____ (2021). An analysis on recent domestic research trends for inclusive music education of students in need of special educ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4), 1061-1080.
- Shin, S. J., & Lee, J. M. (2011).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cure for children with ADHD.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21, 177-205.
- Son, S. W., Lee, J. S., & Lee, B. J. (2012). The effects of music rope-skipping on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of youth with a hearing impairment. *Journal of Exercise Rehabilitation*, 8(3), 161-170.
- Won, J. L., & Ju, Y. S. (2008). An analytic review of research trends in music education programs for preschoolers with disabilities: Using experimental studies published in Korea between 2000 and 2007.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8(1), 93-115.
- Yang, G. O., Kim, J. Y., & Kim, S. W. (2015). The effects of music activities using musical instruments on self-expression and class participation behaviors of children with severe multiple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3(2), 79-98.